

등록번호 서울다-10691
 등록연월일 포덕 154(2013)년 8월 7일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9층
 전화:02-735-3296 / 02-732-3956
 FAX:02-725-7718
 http://www.chondogyo.or.kr
 구독료:1부 1,300원, 연간 30,000원

천도교신문

제188호(통권583호) 포덕 163(2022)년 2월 17일(목요일)
 발행인: 송범두 / 편집인: 김주간 / 인쇄인: 윤병업 / 발행소: 천도교중앙총부



제16차, 17차 종무위원회의 개최

- 세입·세출결산(안), 교헌개정(안) 등 심의



중앙총부는 지난 1월 25일(제16차), 2월 8일(제17차) 수운회관 907호에서 종무위원회가 개최하였다. 종무위원회는 박남준 교무관장의 집례로 박인준 종무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16차 종무위원회의 안건은 ▷포덕 162년도(2021)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안) ▷연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용담수도원 개보수(안)이었고 종무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통과 심의 의결되었다.

제17차 종무위원회의 안건은 먼저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안건상정(안)으로 '교헌개정(안), 임원 선출, 기타'를 안건으로 하기로 하였고 ▷연원수보 심사(안)은 각 연원으로부터 수보된 연원수보를 교헌 제18조, 제48조 4호에 의거 감사원의 오관실행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제40차 정기대회는 포덕 163년 3월 17일(목요일) 오전 10시, 천도교중앙대교당에서 ▷교헌개정(안) ▷임원

선출 ▷기타를 안건으로 하며 교헌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원회는 3년마다 정기대회 이전에 원주직이 포함된 별도의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령을 추대하며,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회에서 추대된 교령을 인준하고 ▶중앙감사, 종의원의원, 유지재단이사 및 복지법인이사 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정기대회는 3년 1차 3월 셋째 주 중에 개최하던 것을 3월 초에 개최하도록 하였다. ▶교령의 임기는 3년 단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령 추대 등에 대한 적용은 개정 교헌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에서 추대되는 교령부터 적용하며 ▶교령사 현기사는 지방에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기사 2면)

조항	현행	개정안
연원회 운영규정 제7조	연원회회의는 정기 연원회의와 임시연원회의로 정한다. ① 정기연원회의는 의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연원회회의는 정기 연원회의와 임시연원회의로 정한다. ① 정기연원회의는 의장이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제16차, 연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무병지란 지낸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비네

治心而心和氣和 冷水不可以藥服之 / 신사법설 영부주문

마음을 다스리어 심화 기화가 되면 냉수라도 약으로써 복용하지 않느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도 일상처럼 지켜주세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나와 이웃을 지켜주세요



가정, 시설에서
주기적인 환기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세요



의심증상 또는
휴가·타지역 이동 후
걱정될 땐 선제검사를 받아주세요

- 보신 새종계** 교단 주요 동정
- 1월 25일, 2월 8일
- 종무위원회의 / 14시, 907호
 - 2월 4일
- 유지재단이사회 / 11시, 5층 재단회의실
 - 2월 10일
- 종교TV 교령인터뷰 / 교령사
- 감사회의 / 162년도 결산 감사 (2월 12일까지)
 - 2월 18일
- KCRP 공동의장단회의 / 14시, 달개비
 - 2월 19일
- 종의원총회 / 13시, 대교당
 - 2월 24일
- 여성회, 제3차 중앙위원회의 / 11시, 대교당
- KCRP 이사회(11시), 총회(14시) / 소태산기념관

吾心極思杳然間 疑隨太陽流照影 / 우음(偶吟)中
내 마음 지극히 묘연한 사이를 생각하니,
의심컨대 태양이 흘러 비치는 그림자를 따르네
후팔절 命, 理杳然於授受와 연관지어 번역하면,
(命을) 깊이 생각해 보니, 태양(한울님)이 그림자(사람)를
쫓아 흐름과 같지 않은가?
- 성사법설 수수명실록, 성심신삼단(주객), 삼성과(혈각성)
을 함께 생각하면 좋을 듯. (각암)

공 고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교헌 제29조에 의거 제4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포덕 163년 3월 17일(목요일) 오전 10시 / 2. 장 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 3. 안 건 : (1) 교헌개정안 (2) 임원선출 (3) 기타

포덕 163년 2월 9일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송 범 두



교헌 제81조에 의거 교헌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第二十四條 淵源會(연원회)는 每年(매년) 三月(삼월)에 議長(의장)이 召集(소집)하며 淵源會(연원회)의 運營(운영)은 規定(규정)으로 定(정)한다.	第二十四條 1. ~중략~ 二月(이월)에 議長(의장)이 召集(소집)한다. (신설) 2. 淵源會(연원회)는 三(삼)年(년)마다 定期(정기)大會(대회) 이전에 原(원)住(주)職(직)이 포함된 別도의 推戴(추대)委員會(위원회)를 構成(구성)하여 教領(교령)을 推戴(추대)하며, 節次(절차) 등은 規程(규정)으로 定(정)한다.
第二十七條 大會(대회)는 다음 事項(사항)을 議決(의결)한다. 1. 教憲(교헌) 및 儀節(의절)의 議定(의정) 2. 教領(교령) 監查院長(감사원장) 中央(중앙)監查(감사) 宗議院(종의원) 議員(의원) 維持(유지)財團(재단)理事(이사) 및 福祉(복지)法人(법인)理事(이사)의 選舉(선거) 3. 財政(재정)處分(처분)에 關(관)한 事項(사항) 4. 各(각)機關(기관)으로부터 提案(제안)된 事項(사항) 및 其他(기타) 重要(중요)한 事項(사항)	第二十七條 ~중략~ 1. ~중략~ (신설) 2. 第二十四條 제2호에 따라 推戴(추대)된 教領(교령)의 認准(인준). 3. 본문내용 현행 2호에서 '教領(교령)' 삭제 ~중략~ (신설) 4. 中央(중앙)監查(감사) 宗議院(종의원) 議員(의원) 維持(유지)財團(재단)理事(이사) 및 福祉(복지)法人(법인)理事(이사)의 選出(선출)은 規程(규정)이 定(정)하는 바에 따라 銓衡(전형)委員會(위원회)에서 選出(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銓衡(전형)委員會(위원회)의 構成(구성)과 運營(운영)에 關(관)하여는 規程(규정)으로 定(정)한다. 5. 본문내용 현행 3호와 같음 6. 본문내용 현행 4호와 같음
第二十九條 定期(정기)大會(대회)는 三(삼)年(년) 一次(일차) 三月(삼월) 셋째주 중에 開催(개최)하되 此(차)를 教領(교령)이 召集(소집)한다. 但(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境遇(경우)에는 臨時(임시)大會(대회)를 召集(소집)한다. 1. 緊急(긴급) 重大(중대)한 事實(사실)이 있을 時(시) 2. 大會(대회)構成員(구성원)中(중) 三分之(삼분지)一(일) 以上(이상)이 事由(사유)를 具(구)하여 連署(연서) 要求(요구)할 時(시)	第二十九條 ~중략~ 三月(삼월) 初(초)에 ~중략~ 1. ~중략~ 2. ~중략~
第四十三條 宗務院(종무원)은 教化(교화) 教務(교무) 經理(경리) 및 社會文化(사회문화) 등 (등) 各(각)觀(관)을 設(설)하고 그 觀長(관장)은 宗務委員(종무위원)으로서 補(보)한다.	第四十三條 宗務院(종무원)의 各(각)觀(관)의 設置(설치), 運營(운영) 등에 關(관)하여는 規程(규정)으로 定(정)하고 各(각)觀(관)의 ~중략~
第八十條 教職(교직)은 原職(원직) 住職(주직) 禮遇職(예우직) 三種(삼종)으로 한다. 1. 原職(원직)은 道正(도정) 道訓(도훈) 教訓(교훈) 信訓(신훈)으로 하며 此(차)는 一切(일체) 無期職(무기직)으로 한다. 2. 住職(주직)은 教領(교령), 淵源會(연원회) 正(정), 副議長(부의장) 및 幹事(간사), 宗務院長(종무원장), 常主(상주)宣道師(선도사), 宗議院(종의원) 正(정), 副議長(부의장) 및 事務長(사무장), 宗議院(종의원) 議員(의원), 監查院長(감사원장), 監查(감사), 宗務委員(종무위원), 教區長(교구장) 其他(기타) 任命(임명)職(직)으로 하며 그 任期(임기)는 三年(삼년)으로 하되 教領(교령)의 任期(임기)는 三年(삼년) 單任(단임)으로 한다. 但(단), 補缺(보결)任員(임원)의 任期(임기)는 前任者(전임자)의 殘期(잔기)로 한다. 3. 禮遇職(예우직)은 宗法師(종법사) 宣道師(선도사)로 한다	第八十條 ~중략~ 1. ~중략~ 2. ~중략~ 教領(교령)은 1차에 한하여 連任(연임) 할 수 있다. 但(단), 補缺(보결)任員(임원)의 任期(임기)는 前任者(전임자)의 殘期(잔기)로 한다. 3. ~중략
	(신설) 부칙: 第八十八條(教領 推戴(교령 추대) 등에 관한 適用(적용)例(례)) 第二十四條(제이십사조) 제2호, 第二十七條(제이십칠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 第八十條(제팔십조)의 改正(개정)은 이 教憲(교헌)의 施行(시행) 후, 最初(최초)로 開催(개최)되는 大會(대회)에서 推戴(추대)되는 教領(교령)부터 適用(적용)한다.
	第八十九條 第四條(제사조)에 불구하고 教領司(교령사) 玄機司(현기사)는 地方(지방)에 置(치)할 수 있다

송범두 교령 종교TV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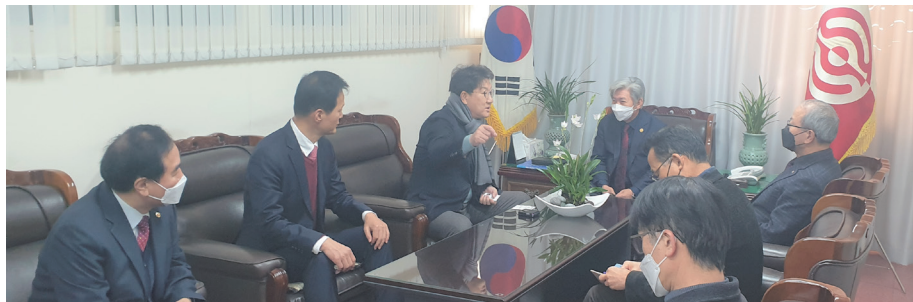


포덕 163년 2월 10일 교령사에서 한국 종교협의회 문상필 사무총장과 송범두 교령과의 인터뷰 촬영이 있었다. 유튜브 채널 종교TV 방송용으로 올해 3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송교령의 지난 업무를 정리하고 천도교를 소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년 인일기념일에 중앙대교당건립100주년기념비 제막식 및 기념타입캡슐 매설식을 대교당 앞에서 진행하였음을 얘기하였고, 오는 3월 1일 제103주년 3.1운동 기념식 준비를 필두로, 3월 17일에 열리는 새로운 교령과 집행부를 선출하는 제40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다가오는 가장 중요

한 일정으로 꼽았고, 3년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19년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행사를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였는데, "128년 전에는 '이곳에서 교조 신원을 목놓아 간청하였는데' 하는 감회가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천도교 4대 스승님, 종지, 목적, 교리, 신임 대통령의 자격, 북한의 청우당, 통일을 위한 천도교의 역할, 퇴임 후 계획,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병 세계적 유행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교령사)



1월 28일, 권성동 국회의원 교령사 방문

인성당 정운벽 선도시 상수연(上壽宴)

-2월 13일, 만100세 맞이잔치



서울교구(교구장 윤태원)에서는 2월 13일 시일식 후 올해 2월 15일(음 1월 5일) 만100세를 맞이하는 인성당 정운벽 선도시를 축하하는 상수연(上壽宴)을 동덕여러분과 가족을 모시고 천도교의 절 생일축하식에 따라 봉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장남인 직암 박성기 선도시의 떡케익 점화와 서울교구합창단의 생일축하노래, 가족대표와 서울교구 여성회의 선물과 꽃다발 증정 등이 있었다.

정운벽 선도시는 100년전인 1922년 포덕 63년 음력 1월 15일 황해도 웅진군 교정면 천천리에서 천도교 웅진 지역 지도자이신 포암 정한영 아버님과 김한화

어머님 사이의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18세 되던 포덕 80년 4월 1일 중앙대교당에서 신암 박승래 선생님의 2남 박병림 선생님과 결혼, 어려서 일찍이 익힌 바느질로 평생 동안 수만 벌의 옷을 만드는 일로 4남매를 키우셨다. 평생을 학교에 가지 못한 한을 품고 지내시면서, 천도교 경전인 용담유사 가사 8편 전편을 암송하는 정성을 보이신 분이시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천도교 신앙은 백 세이신 지금까지 주문과 경전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신심과 정성을 드리신 분으로 서울교구 여성회 감사와 고문 등의 직을 역임하셨다. (서울교구)

사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말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화두와 같다. 대체 신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정답은 있는 것일까? 신앙체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이러한 근본적 의문에 직면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신앙생활이란 주관적이며, 그 주관식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신앙과 종교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다. 기성의 종교론자들은 신앙이란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복종과 믿음의 행위로서 인간의 신념과 신뢰와 실천을 전제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면, 종교는 내세를 전제로 절대자의 전지전능한 권위를 믿는 강력한 조직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기성 종교론자들이 우리 천도교를 학문적 관점이나 운동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종교적 구조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간 우리 천도교는 교헌을 제정하고 복잡하리 만치 많은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스스로를 제도화 규정의 틀 속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종교적 구속이란 말을 연상하게 한다. 오늘날 종교적 권위가 미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과학과 인지의 진보와 발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성 신장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종교적 의미가 지닌 내세를 전제로 한 절대자의 전지전능한 권위를 내세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려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의 행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수련제일주의의 태도다. 모든 문제는 수련을 다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자세다. 둘째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유로 물량을 중시하는 상업자본주의에 기대는 자세다. 교당을 키우고 수익을 창출하여 자본을 확보하고,

그 자본으로 물량을 극대화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태도다. 셋째는 종교 조직체를 중시한 가운데 교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제도와 규정으로 해결하려는 교리제일주의의 태도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 더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한 몫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절대자의 심판이나 우주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초한 결과이며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우리 천도교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수련제일주의도, 물량제일주의도, 교리제일주의도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환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내다보며 전혀 새로운 신앙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듯한 맹신적 신앙도 아니고 투쟁적 자세도 아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융합되고 일체화되면서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생활형 신앙을 실현하는 것이다. 천도교를 신앙하는 것이 외형적 교회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대한 기업적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려 든다거나, 교리와 규정을 내세워 지나치게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다툼으로 일관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파괴한다거나, 반대로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 채 수련만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사회적 참여를 경시하는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립과 갈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대환난을 극복하려는 진실한 신앙자세와 종교행위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내다보며 다 시개벽의 신앙관으로 참다운 종교의 길, 실천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김순홍 시천주복지재단 이사장 정권 1년 징벌 확정

-제1차 임시감사회의에서, 교령 재의 요청건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5일 결의한 징벌재가 요청 건에 대한 송범두 교령의 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8일 제1차 임시감사회의를 개최해

김순홍 시천주복지재단 이사장이자 여성회본부 부회장에게 정권 1년을 포덕 163년 1월 10일부로 확정하였다. (감사원)

수운 옛길, 경주 용담정에서 남원 은적암까지 순례 마무리

- 1월 3일부터 27일까지 도보로 450km, 동학유적지 답사



지난 1월 3일 경주 용담정을 출발하여 1월 27일 남원 은적암까지 450km, 천리 넘는 순례가 마무리 되었다. 김석균(순례단장), 조기현, 최광식, 이성채 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였고, 각 지역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이는 모두 백여 명이 넘었다. 경주, 울산, 양산, 부산, 고성, 진주, 광양, 순천, 구례, 남원 등 여러 지역에서는 순례자들의 식사,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함께 길을 걸었다.

최광식 씨는 “걸어보니 알겠습니다. 동학 바람은 등뒤에서 불어와 저희를 밀어왔습니다. 눈보라 휘날리는 한겨울, 수운 길을 걸어보려던 헛된 꿈은 곳곳에서 보내주시는 한울님들 뜨거운 입김에, 걸음을 벗고서야 걸을 수 있게 하

셨습니다.”고 소감을 말하고, ‘바람으로 밀어주신 동덕 한울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조기현 씨는 “고성에 소년 동학혁명군 황태의 선생님 묘소를 찾았으나 주변만 맴돌고 끝내 찾지 못했다. 17살 나이에 동학혁명에 따라 나섰고 3.1혁명과 그후 독립운동 등 애국지사인데 묘소의 (이장) 안내판 하나 없다.”며, 2년 전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 황태의 선생의 묘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많은 문화행정의 무성의를 아쉬워 하였다.

남원 은적암에서 순례단 해단식에 참여한 어느 분은 2월 말부터 경주 용담정을 시작으로 수운옛길을 걷겠다고 밝혔고, 또 어느 분은 십여 년 전 용담정에서 성주, 장수,

무주를 거쳐 남원 은적암까지 순례했다고 밝혔다.

이 순례길은 용담정, 울산여시바윗골, 양산 적멸굴, 부산지역 동학유적지, 고성 묵암신용구선생묘소, 진주·하동지역 동학유적지, 광양·순천지역 동학유적지, 남원은적암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학의 탄생과 천도교의 활동을 새길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용담정에서 은적암까지 천리가 넘는 길이 ‘수운옛길’로 정착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면, 순례길 주변의 숙식 정보, 구간 설정과 표지판설치, 지자체와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탁암)

영등포교구 입교식 봉행



영등포교구(교구장 허태영)에서는 1월 23일 각암 박해용 동덕을 전교인으로 지해찬 동덕의 입교식을 봉행하였다.

이날 입교식을 집례한 정암 박정연 도훈은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하자면 ‘기쁜 나로 살고자 함이다’라며 ‘수련에 매진하여 한울님과 스승님의 덕화로 항상 ‘기쁜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입교식 후에는 21일 특별기도를 봉행하라’고 당부하였다.

지해찬 동덕은 “종교에 관심이 많아 불교

철학도 공부해 보고 천주교 성당에도 몇 년 다녀 보았지만, 마음에 항상 모자람이 있었다”면서 “대학 도서관에서 윤석산 교수님의 『주해 동경대전』 등 여러 천도교 서적을 읽고 천도교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입교하게 되었다”면서 “내일 새벽부터 21일 특별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지 동덕은 입교식 한 달전부터 영등포교구에서 전교인의 지도로 매일 2시간씩 주문 수련을 하여 강령 체험도 하였다. (영등포교구)

한울연대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 줌으로 진행, 사업계획 등 심의



천도교한울연대(상임대표 이미애)는 1월 15일 수운회관 709호와 줌(모바일/PC)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감사보고, 2021년 사업 및 회계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한울연대 사업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환경교육 실시(대상은 작년 천도교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한 단체를 우선적으로), 태양광 사업 추진(교당, 용담수도원, 수운회관 등), 한울연대 부설 협동조합 설립 등이 논의되었다.(한울연대)

제34회 부산 여성연합회 총회 개최

-1월 23일, 대동교구에서 임원진 개편

지난 1월 23일 대동교구에서 부산여성연합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개편을 하였다. 회장: 시정당 문춘옥(부산시교구), 부회장: 정신당 윤순필(대동), 감사: 수인당 손운자(부산시교구) 경성당 김경임(대동), 재무부장: 정리당 박정례(부산시교구), 총무: 신성당 구옥주(대동). (부산여성연합회)

제148주기 박씨 사모님 순도 환원기도식 봉행

- 여성회본부 재가 기도식으로 봉행



여성회본부(회장 박차귀)는 1월 26일 저녁 9시, 제148주기 박씨 사모님 순도일을 맞아 환원기도식을 천도교의절 제4장 제1절 제례의 절차에 따라 재가봉행하였다.

박씨 사모님은 울산에 태어나 일가의 증매로 17세 경에 두 살 위인 대신사와 결혼하였다. 대신사가 10여 년 주유천하할 때 혼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렸고, 1861년 여름부터 대신사가 포덕을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찾았을 때 손님 접대에 분주하였다. 1864년 대신사 순도 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를 피신하였다.

영해교조신원운동(1871년) 이후 큰 아들 세정이 양양옥에서 옥사(1872.5.12.)한 뒤 정선군 동면 화암리 싸내(米川) 깊은 산중으로 피신하였다. 박씨 사모님은 영양 실조에 걸렸고 1873년 12월 9일(양1874.1.26)에 49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이듬해인 1875년 1월 22일에는 둘째 아들 세청은 병을 얻어 급사하였다. 사모님의 대상을 마치고 나서 장녀는 윤씨 가문에, 차녀는 허씨 가문에, 3녀는 윤씨 가문에, 4녀는 한씨 가문에 출가하였다. 허씨 가문에 출가한 이는 최완으로 남편은 인제군 아전 이었던 허찬이며, 지금도 그 후손들은 천도교에 나오고 있다.

박씨 사모님과 둘째 아들 세청의 묘는 1876년 봄 허찬을 위시하여 사위들이 힘을 모아 영춘 의풍으로 이장하였다가, 그 후 둘째 딸인 최완의 큰아들(허찬의 큰아들) 허균이 1943년 봄에 두 분의 묘를 대신사 태묘 능선 왼쪽 뒤편에 이장하였다. 세청의 부인 강릉 김씨(1920년경 환원)는 대신사 태묘로 가는 바른쪽 산 능선에 모셨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평지가 되어 1984년에 박씨 부인의 묘소 아래쪽에 모셨다. 그 후 세정이 처형된 장소인 양양군청 뒤에서 흙을 파다 합쳐 모셨다. (여성회본부)

고정훈 종법사 제10주기 추모제 봉행

- 한강교구에서, 유족과 교인들 참례



지난 1월 23일 한강교구에서 유족들과 교인들이 참례한 가운데 정암(正菴) 고정훈 종법사 추모제가 열렸다. 고정훈 종법사는 포덕61년(1920) 남해 고현면 도마리에서 출생하여 포덕75년(1934) 입교하여 남정포 도정(1963), 선도사(1967) 등을 거쳐 두 차례(1983, 1986) 교령을 역임하였다. 이후 연원회의장, 용담수도원장을 지냈고 포덕130년(1989) 종법사로 추대되었다. 포덕153년(2012) 1월 26일 94로 환원, 남해 선산 가족묘에 안장되었다.

(글,사진/주영준)

불우이웃 성금전달

- 1월27일, 대동교구

천도교 대동교구(교구장 장인갑)는 1월 27일, 부산 남구에 이웃돕기 성품으로 오륙도페이(200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구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동교구)



제55기 묵암 신용구 선생 환원 추모식 봉행

- 고성교구에서 경상도연원회 법회 및 총회도 개최



지난 2월 10일 11시 천도교연원회와 남진포 주최로 제55기 묵암 신용구 선생 추모식이 고성교구에서 열렸다. 코로나(오미크론) 감염이 창궐한 중이지만 참석자들이 거의 모두 백신3차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어, 10시 경상도연원회 법회, 11시 추모식, 12시 경상도연원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추모식은 정덕재 경상도연원회 사무국장의 집례로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병송, 경전봉독(성령출세), 약력소개, 추모사, 천덕송(위령송) 합창,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의맹 연원회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묵암 선생이 말씀하신 '연원과 오관실행'을 강조하며 '선생님의 포덕과 교화와 연원정신은 잊지 않겠습니다. 포덕이 일어나면 교화가 있고 교화가 있으면 연원이 강화됩니다.'라 하였다.

묵암 신용구 선생은 1883년 9월 경남 진주(산청)에서 출생하여 포덕55년(1914) 황태익 접주의 포덕으로 입교하였다. 창녕, 진주 등 경상도지역에서 포덕 활동에 종사하여 60여만 명을 포덕하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3.1운동 당시 영남 지역 대표 기도처인 경주교구에서 49일기도를 실시하여 경상도지역 3.1운동을 진두지휘하였고 이해 4월 투옥되었다. 이후 경상도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주간포덕사, 도령 등을 역임하였고, 포덕101년(1960) 교령에 선출되었고 이후 다섯 번이나 교령에 선출되었다. 1963년 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1967년 2월 10일 고성 자택에서 환원, 고성읍 남산록에 안장되었다. (탁암)

정암 이종훈 선생 추모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모임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추진, 30여명으로 구성



지난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사무소에서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정암 이종훈 선생 추모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정암 이종훈 선생(1856~1931)은 천도교인으로서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며 고려혁명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추진위원회는 박두순 이장협의회장이 맡고 있으며 자문위원으로 윤석산 한양대 명예교수, 김시형 동학역사문화선양회장, 오성덕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회장, 이창봉 중앙대교수가 참여하고 있고, 이용호 곤지암읍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 및 이천희 광주이씨 심운과공파 유족회당 등 종친회 종원 등 3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사진/오성덕)

불우이웃 돕기 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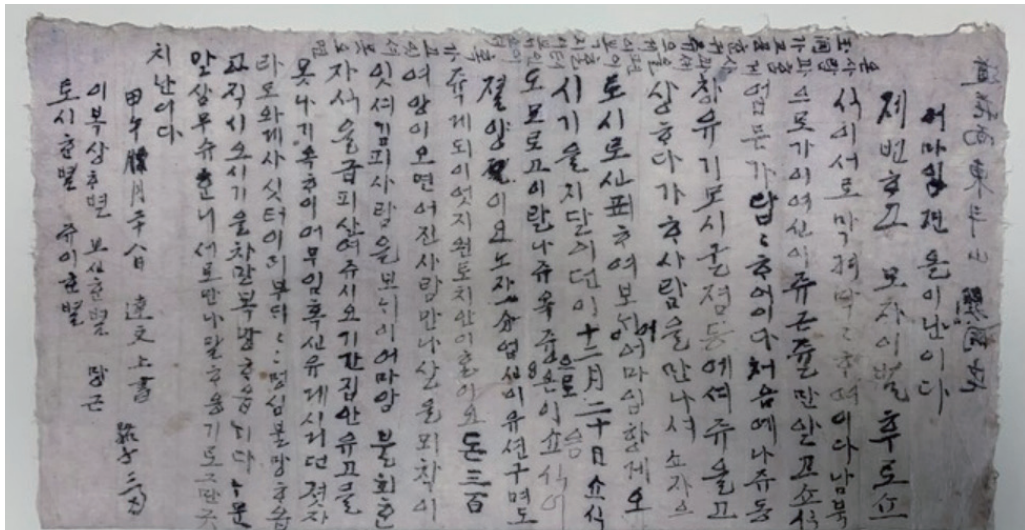
- 1월27일, 부산시교구

부산시교구(교구장 김영옥)는 1월 27일 그동안 순일한 정성으로 반포의 함에 모아주신 성금으로 초량3동 어려운 이웃에게 쌀10kg 20포대(54만원)와 여성회 김주연 동덕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쌀10kg 20포대(54만원)를 초량3동 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부산시교구)



동학군 옥중편지 문화재로 지정

-나주옥에 수감 중이던 한달문의 한글편지



문화재청은 '동학농민군 편지(2022)'를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동학군의 편지는 전남 화순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다 나주 감옥에 수감 중이던 한달문(1859-1895)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직접 쓴 옥중 한글 편지 원본이다.

이 편지는 본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고상' - 고생(苦生), '깊피' - 급히, '직시' - 즉시 등 전라 방언 특성이 담겨져 있으며 당시 동학농민군의 의지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지난해에도 동학군 편지를 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지정된 동학군의 편지는 유광화가 1894년 11월쯤 동생에게 보낸 한문 편지다. 유광화는 양반가의 자제로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로 활동하며 군수물자를 조달하고 화순전투 등에 참여한 인물이다.(탁암)

2차 동학서훈추진 특보단

-1월 19일, 국회에서 출범식 가져



정치권의 관심을 위해 특정후보 지지 퍼포먼스를 하는 특보단

지난 1월 19일(수) 국회에서 '2차 동학서훈추진 특보단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2차동학서훈추진 특보단'은 박용규 단장(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정해근 동학유족회 사무총장 외 6인의 부단장과 지역단장 및 백여 명 이상의 특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보단은 2차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봉기 참여자에게 독립유공자로 서훈해 예우할 수 있도록 지지세력을 확산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동학군의 1차 봉기는 봉건체제에 대한 반봉건 투쟁이었고, 2차 봉기는 일본의 침략에 따른 반제국주의 항일전쟁이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국권침탈

에 저항한 민족적 항쟁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포문을 연 뜻깊은 역사이지만, 전봉준 김개남 등 혁명참여자나 해월신사 등 어느 누구도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규 2차동학서훈추진 특보단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라는 법률이 지난 2004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가보훈처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조속히 국가보훈처는 결단하여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독립유공자법에 의거하여,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고 촉구해 왔다.(글/사진 박용규)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적극적 추진

- 제1회 세계혁명예술국제포럼 개최, 세계사적 의미 재조명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세계의 혁명 문학과 영화'를 주제로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세계혁명예술국제포럼을 지난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선양사업을 펼쳐온 전주시는 동학 정신을 세계 근대 혁명의 도시들과 공유하고 동학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이번 국제포럼을 준비했다.

첫날 1월 21일은 '문명전환기 혁명의 기념과 재현'을 주제로 한 서울대 박명규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의 근대혁명기 문학관 ▲독일농민전쟁과 러시아의 혁명 문학·영화 ▲아일랜드 농민혁명과 체 게바라 혁명문학·영화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학술포럼이 진행됐다.

학술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문병학 시인이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을 발표했으며, 이어 일본 삿포로 대학의 요코시마 고지 교수가 '시바료타로와 타올라라 김'을 주제로 막말유신기 일본의 혁명인식과 혁명문학을 소개했다. 뮌하우젠 박물관의 토마스 뮐러 관장이 독일의 대표적 사회개혁운동 지도자였던 토마스 뮌처가 등장한 독일농민전쟁 영화를 소개하며 독일영화에서 그리는 사회주의 운동과 독일농민전쟁을 소개했다.

엘레나 이코니코바 러시아 사할린국립

대 교수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 '고뇌 속을 가다'와 이를 각색한 영화에 나타난 혁명의 이미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 셰필드대학의 퀴바 닉 고바이드 교수는 문학과 영화에서 그린 아일랜드 혁명을 소개했고 남미 혁명의 영웅 체 게바라의 실제 친조카이자 작가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는 체 게바라를 소재로 한 문학과 영화를 다뤘다. 학술포럼이 끝난 후에는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에서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 '윈 네이션'이 상영됐다. 이틀째인 1월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본 근대혁명기를 소재로 한 '바람의 검 신선조'와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녹두꽃'이 각각 상영됐다.

전주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발판 삼아 ▲동학농민혁명과 예술의 접목 ▲동학 관련 서적 번역 등 동학의 세계화 ▲혁명도서관 조성 등 전주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동학 관련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을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규명하고 해석해온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명의 예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제포럼의 주제를 건축과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시켜 전시와 공연, 영화 등을 결합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암)

<환원 소식>

평암 박찬수 선道家(향년 89세, 전 고현교구장) 1월 31일 새벽 환원
상주: 아들 박정서, 며느리 이난희, 딸 박점숙·박람숙·박인숙·박성숙·박성자·박성희, 사위 유환성·김종삼·최병태·한신·류갑룡·김대호, 손자 박석주, 손녀 박화진

천안 시민단체와 박상돈 천안시장 역사갈등 봉합

- 천안시장 사과, 동학도서관 등 기념사업 추진키로



지난 1월 26일 오후5시 충남 천안시 장실에는 충남동학농민혁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강대석·이용길·정한구·최기섭 등 회원들과 박상돈 천안시장과 천안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박상돈 시장이 동학 등 역사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을 사과하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세성산학술용역보고서를 추가로 인쇄하여 배포하고, 목천관 동경대전 간행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며, 이이화 선생 장서 및 자료는 전문가에게 목록작성 및 평가를 의뢰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의 결과에 따라 기념관이나 동학도서관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천안시의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천안 세성산 동학군들을 '패잔병'이라며 능멸하였고, 이에 천안시민들은 사과를 촉구하였고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안시청사 출입문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해 왔다. (탁암)

삼요정(三樂亭)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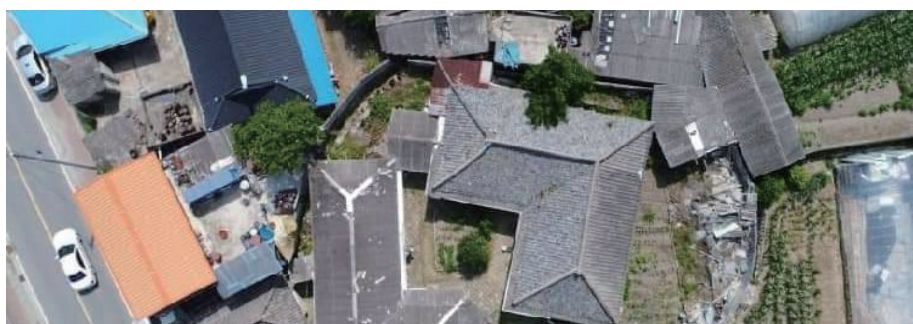
임실군 운암면의 삼요정(三樂亭)이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곳은 독립유공자 삼혁당 김영원의 일괄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삼혁당 김영원(1853년~1919년)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접주로 참여했으며, 우금치 전투에서 패퇴한 이후 6년간 회문산에 은거했다. 1906년 청용면 삼화학교와 전주 창동학교 등의 교장으로 민족교육운동에 전념했고, 1914년 임실교구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운암면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

동 중 피체되어 그해 8월에 옥중에서 순국했다.

독립유공자 삼혁당 김영원 일괄 자료는 36건으로 전적류 6건과 고문서 30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선생의 동학 이전의 유학자로서의 삶과 동학 접주로서 활동, 천도교 민족교육 등을 보여주는 1919년까지의 자료들이다. 김영원은 25세의 나이에 무성서원 장의와 색장을 지냈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삼요정(三樂亭)을 지어 후학 양성에 힘썼다. (희암)

천도교 임실교당 수리복원사업 추진

- 임실군, 14억 예산 복원추진



임실군은 2022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천도교 임실교당 수리복원 사업으로 국도비 14억원을 확보했다. 2020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천도교 임실교당은 1930년에 건립된 것으로 'ㄱ'자 건물은 좌우가 대칭이고 각각 전면 6칸, 측

면 3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마치 인내천의 인(人)을 보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올해 국도비 14억을 들여 완전 수리 복원을 통해 천도교 초기 건축물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희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 철회 촉구”

- 종교환경회의,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천도교 등 5개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이미애)는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고, 다음날인 1월 25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주최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종교환경회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안 철회 촉구와 함께 “최근 대선 후보

자들이 핵발전에 대한 입장을 서로 발표하며 '감원전'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즉각 건설재개' 등 아직도 핵발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를 진행했고, 이어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제6차 원자력진흥계획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최종심의 및 의결했다.

(한울연대)

‘정순철 짝짜꿍 어린이합창단’ 경주방문

“동학노래 ‘동학은 흐른다’ 유튜브 감상하세요”



지난 1월 22일 서울과 옥천에서 '정순철 짝짜꿍 어린이합창단' 어린이들이 경주를 방문하여, 작곡가 정순철의 외할아버지이신 최시형 해월신사 동상을 방문하였다. 어린이들은 동학노래를 녹음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유튜브 '동학은 흐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김성표)

포덕 163년 어린이시일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관 : 낙안회 / 후원 : 천도교 중앙총부

일시 : 포덕 163년 1월~12월 둘째주 일요일
장소 : 온라인(신청자에게 ZOOM 링크를 공유)
내용 : 11시 어린이시일,
11시 30분 신나는 활동.(30~40분 소요)
신청 : 010-9275-8060
(문자로 소속교구, 이름, 학년, 우편물주소를 보내주세요)



보신 새롬계

천도교종학대학원

포덕 163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정규 및 통신과정

모집인원	00 명
모집지역	서울본원(수운회관 307호) / 부산본원(부산 대동교구)
수업연한	2년(4학기)
지원자격	1) 종학대학원을 이수하지 못한 교역자 2) 종학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천도교인 3) 종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받고자 원하는 자로서 각 교구장의 추천이나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수학 능력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일반인
등록금	매 학기 20만원(입학금 10만원)
교육방법	출석수업 및 원격학습
	정규과정 : 토요일(오후 1시 - 오후 6시) 목요일(오후 7시 - 오후 9시) (부산본원은 별도 과정으로 운영)
학사 일정	2022년 3월 5일(토) - 6월 11일(토) / 15주
입학식	2022년 3월 5일(토)
장소	수운회관 307호

전형방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서류	입학원서, 학업 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추천서 각 1부 사진 2매(3x4명함판)
제출방법	종학대학원 교무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응시원서 : 홈페이지 www.chondogyo.or.kr 참조
서류접수기간	포덕 163년 2월 1일(월) - 포덕 163년 3월 5일(토) 오후 5시까지
합격자 발표	개별 이메일 통보
입학금 등록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443-137754-13-001 (예금주)천도교중앙총부
문의	02)720-3020

천도교종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307호 우)03147

Tel 02)720-3020 Fax 02)732-6073

e-mail jusinkhan@naver.com / webmaster@chondogyo.or.kr

홈페이지 <http://www.chondogyoac.or.kr>

